

## 学習成果報告

2005年4月～2006年3月受入交換留学生  
韓国カトリック大学言語文化学部 3年  
嚴 美仙 (オム・ミソン)

人間は誰でも新しい環境、またはよく知らない環境や人、さらに物をみるときに先入観を持ち、それに沿って判断する。日本という国も例外ではなかった。日本語を専攻している学生だといっても、直接その国で生活しながら勉強することはそれほど簡単にはいかないものである。「現地で勉強したい」という気持ちで交換留学生試験に応募し、合格できてとても嬉しかったが、日本に対し、近くても遠い国と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た私だったので、日本での生活は不安そのものだった。しかし一年が過ぎ、帰国する準備をしながらこの一年を振り返ってみると、さまざまなことを得ることができ、有益な時間であったと思う。

私の日本での生活は2005年4月1日から始まった。私が暮らす場所は、日本の長野県にある松本市であった。どこを見ても山が見える場所で、またとても静かな町で、着いたばかりのときに驚いたのを今でも覚えている。そして、一週間が過ぎて、ある程度松本に慣れた頃から、信州大学での授業が始まった。前期には信州大学の日本語コースの留学生センターでの授業を中心に勉強した。科目は日本語の読解、会話、作文、発音など中級以上の学生の日本語能力を上達させ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特にこの課程(留学生センター授業)の一番大きい長所は、日本語だけでなく、日本文化も十分体験できるという点である。いつも頭だけで理解してきたものを直接見て、触って、考えながら学べる、とても貴重な時間であった。後期には、日本語の授業とともに一般の日本人学生と一緒に授業を受けられる共通教育の授業と、人文学部の授業を並行したが、特に日本文学史という授業は、文学を通して中世から近代まで繋がる日本の時代の流れまでを知ることができ、私にとって非常に有意義なものとなった。しかし、初めて受けたときには授業に出てくる用語がとても難しかったため、授業の内容を半分も理解できなかった。そのため、授業のたび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感想文に何も書けないときもあった。しかし、自分でも知らないうちに授業に集中し、意見を真面目に書いている自分に気づいたときはとても嬉しかった。

そして私の日本での生活の中で忘れてはいけぬもう1つのことは、サークル

の活動である。友達の誘いで偶然に入ることになったこのサークルは、1年生の新入部員だけでも50人を超える体育系のサークルだった。既存の部員も合わせると、100人近くになるサークルだったので、果たして私がかまうまうやっつけいけるのかどうか、むしろ一人の友達も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心配が大きかった。しかし、留学生としてお互いの気持ちに隔たりを感じることは全くなかったし、逆にとても小さいことまで面倒をみてくれた日本人の友達がいて、早めにサークルの一員としてなじむことができた。サークルの活動が一週間に一回しかなかったのが残念だったが、その一回が私にとってはひとつの活力の素であった。また会員数が多かったため、多様な学部の人達と出会う機会でもあったし、そのおかげで様々な考え方、生き方を持っている日本人学生と接することができた。帰国前、最後の活動の時には女子の友達だけでなく、男子の友達まで涙をみせて、切なくなったりもした。

サークル以外にも日本での大切な出会いは多かった。それは第2の家族になってくださった小林さん家族をはじめ、丸山さん家族、留学生センターの先生方、きれいな着物を着させてくださった上原先生、茶道の先生、そして世界の各地から来た心の友の留学生達である。この人たちがこれからの私の人生にあって大きい存在になるのは確かであろう。

最後に、日本での旅行も絶対に忘れられない貴重な思い出である。主に休みのときに旅行したが、短いときは週末を利用して多くの場所に行った。北海道をはじめ東京や愛知、穂高町、上高地、軽井沢、富山、馬籠、京都に至るまで、機会があるときには必ず足を伸ばした。このような旅行を通して、より深く日本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たし、またこの旅行が、自らの見識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機会であったと考える。

今回の留学生活で一番大きく学んだ点は、「やはり人間というものは、どんなものにしてもその中に隠されている真実を直接見て、感じて、体験するまでは、それに対する本当の価値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また評価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私の留学生活も同じだった。10ヶ月という短い時間だったが、その10ヶ月の期間は、私が考えていた日本について、見直す時間としては十分だったと思う。いや、そのような“目”を、「物を見直す、批判的に見られる目」に成長させる時間として十分だった。日本という国は私が想像していたものと合っていたり、異なっていたりした。その中で、「日本」という国に近寄ることができたような気がした。もちろん、私がかもっていた日本に対する先入観を捨てることもできたし、私がか知っていた日本を確かめることもできた。また先入観や知識が本当かどうか調べることが、私に期待と興奮を与え、学習に対する楽しみを与えてくれた。

一年間の生活だけで、日本はこのような国だとは一言で言えないが、昔の文化を固守したり、新しいものを発展させたりしながら、お互いに尊重、配慮できる

日本に対してもう一度考え直すことができ、さらにいい考えと思想を持つことができた。日本での留学生活はこれからの私の人生にとって多くの影響を与えると考えてる。

## 학습 성과 보고서

2005년4월부터2006년3월까지 신주대학교 교환유학생  
한국 가톨릭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 전공 3학년 엄미선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 혹은 잘 알지 못하는 환경이나, 사람, 심지어 물건을 볼 때에도 자신안에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 일본이란 나라도 예외는 아니였다.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도, 직접 그 나라에서 생활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것은 말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현지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에 교환 유학생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뻐지만, “일본”이라고 하면 가깝지만 “먼나라” 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던 나에게, 1년간 일본에서의 유학생살이란, 불안과 걱정 그 자체였다. 1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그때의 나를 회상해 보면 웃음만 나온다.

나의 일본에서의 생활은 2005년 4월 1일 나고야 중부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내가 살곳은 일본 중심부에 있는 마츠모토라는 곳이었다. 어디에 시선을 두어도 산이 보이고 매우 조용한 마을이어서 처음 도착했을때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난다. 어느정도 마츠모토에 대해 적응을 했다고 싶었던 일주일을 보내고 난뒤 신주대학교에서의 수업이 시작 되었다. 전기에는 일본어 코스인 유학생 센터 수업을 중심으로 들었고 과목은 일본어 독해, 회화, 작문, 발음 등 중급 이상의 일본어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수업이었다. 특히 이 과정(유학생 센터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문화 또한 충분히 체험할수 있다는 점이다. 항상 머리로만 이해해왔던 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생각해가면서 학습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많았다. 후기에는 일본어 수업과 함께 일본학생들과 함께 들을수 있는 공통 수업과 인문학부 수업을 병행 하면서 들었는데, 특히 일본문학사라는 수업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중세에서 근대까지 이어지는 일본문학을 통해서 문명계뿐만이 아닌 일본의 시대의 흐름까지 알수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였다.

나의 일본에서의 생활중 빼놓을수 없는 또 하나는 써클 활동이다. 일본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가입하게 된 이 씨클은 1학년 회원만으로도 50명이 넘는 대형 씨클이었다. 기존 회원들까지 합하면 회원수가 100명에 가까이 되는 씨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연 이 많은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잘 해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유학생 이라고 해도 전혀 거리감 없이,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히 챙겨주었던 일본 친구들 덕분에 빨리 씨클에 적응할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밖에 모임이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그 한번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활력소가 되었고, 다양한 학부생을 만날수 있는 기회가 되어 여러가지 이상을 가진 일본학생들과 접할수 있었다. 귀국전 마지막 활동때에는 여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남자 친구들마저 눈물을 보일 정도로 친해지고 정이 들어 있을 만큼, 나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 이외에도 일년간의 유학생화에 있어 뜻깊은 만남이 많았다. 제 2의 부모님이 되어주셨던 코바야시 가족분들이나 마루야마 가족분들, 유학생 담당 선생님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알게된 한국을 좋아해주시는 많은 한국어 강좌 학생분들, 기모노, 다도 선생님,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써 잊지 못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여행 또한 절대 빠트릴수 없는 귀중한 추억이다. 주로 방학을 이용했지만 짧게는 주말을 이용해서도 많은 곳에 다녀왔다.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도쿄, 아이치현, 호타카마을, 카미코지, 카루이자와, 토야마, 교토등에 이르기 까지 기회가 있을때 마다 빠지지 않고 다녀왔다.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더욱 깊이 일본을 이해할수 있었고, 나 스스로 식견을 넓혀 나갈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학생화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크게 배운점은 역시 사람이란 그 안에 있는 진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참된 진가를 알수없다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화도 마찬가지였다. 길다고 하면 길었던, 짧다고 하면 짧았던 일년도 내가 가지고 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 내가 알고있던 일본을 확인 해 볼수 있는 시간이되었다. 그 중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본의 것들이 어떤것은 맞게 어떤것은 틀리게 다가왔고, 그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알아내는것 또한 나에게 있어서 기대, 흥분을 주어 학습에 대한 즐거움또한 알게 해 주었다.

일년간의 생활 만으로 일본은 이렇다라고 단언 할 수는 없지만 옛문화를 고수,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면서 서로 존중, 배려 할줄 아는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앞서나가 더 많은 좋은 생각과 사상을 가질수있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화는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한다.